시인들 삶 새긴 시집 들고 가을과 함께 왔다

CULTURE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주영국 시인

주영국 시인 제3주기 유고시집 '구름 사내'

제7부 구성, 총 65편 등 수록…출판회 17일

양기창 3시집 '자유의 몸' 걷는사람서 출간

총 3부 구성, 옥중의 기록 등…출판회 10일

양기창 시인

올 여름 시단의 특징은 1년 내내 꾸준하게 시집이 출판됐다는 것이다. 가을의 초입에서 달라진 것은 좀더 선명하고 명징해진 삶을 살아온 시인들의 시집들이 가을과 함께 대거 독자들 곁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상반기에 나온 시집들 역시 가물어진 시단을 촉촉하게 적시는 시집들이었지만 완연하게 선선하게 만날 수 있는 10월 전후의 시집들은 저마다 사연이 융숭해진 작품집들이다. 최근 들어 주영국 시인의 유고시집과 양기창 시인의 시집 등이 가장 눈길을 끄는 시집들이다.

먼저 주영국 시인의 제3주기(10.16)를 맞아 두 번째 시집이자 유고시집인 '구름 사내'가 푸른사상 시선 215번째 권으로 나왔다.

주 시인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오월문학제' 행사를 비롯,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조직활동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2019년 10월에 그는 첫 시집 '새점을 치는 저녁'(푸른사상사 刊)을 출간해 문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안타깝게도 한창 창작을 할 나이인 2022년 향년 61세의 나이로 타계해 많은 문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번 유고시집은 동료 문인들이 '주영국 유고시집 간행위원회'(위원장 김완 시인)를 구성해 엮어내게 된 것이다.

이번 유고시집은 제7부로 구성됐으며, 첫 시집 '새점을 치는 저녁' 출간 전후의 발표작 51편과 미발표작 14편 등 총 65편의 시와 함께 공주대 대학원 시절의 석사학위 논문초록 및 김완 시집, 임지형 동화집의 서평이 수록됐다.

또 제6부와 제7부에는 김완 김수 박관서 강대선 김옥종 함진원 성미영 오하린 강희정 한경훈 박신영 김윤환 이화경 등 동료 문인 22명이 쓴 추모 시와 산문, '주영국론' 등이 수록돼 고인의 생애와 삶을 기리고 있다. 시집의 권말에는 이승철 시인(한국문학사 연구가)의 '주영국 시인 연보'가 실렸다.

주 시인의 작품은 물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확대, 심화한 시세계라는 평과 함께 탄탄한 구조와 절제된 미학으로 개성적인 문체를 보여주는 동시에 군복무 35년 동안 '기상예보관'으로 하늘과 바람과 구름을 바라보며 살아온 시인의 삶을 바탕삼아 창작된 작품들이어서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시집 출판기념회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주영국 유고시집 간행위원회' 주최로 진행된다.

이어 2014년 '작가'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양기창 시인은 2023년 두번째 시집 '쏠테면 쏘아 봐라'에 이어 3년여만에 세번째 시집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는'을 걷는사람시인선 129번째 권으로 펴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출소, 재판을 진행 중이던 중 다시 구속됐으나 풀려났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구속 상태였다. 시집이 나온 직후 지난달 말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기간에 집필된 옥중 시편들을 중심으로, 시인이 걸어온 삶과 사유의 궤적을 집약한다. 청년 시절 광주에서 문학을 시작해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그의 이번 시집은 구호와 이념을 넘어선 내밀한 언어의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집은 총 3부로 구성, 옥중에서 견딘 일상의 기록, 자화상 연작을 통한 고독한 성찰, 고향과 자연 풍경 속에서 되살아난 공동체적 감각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이번 시집은 '노동'과 '영성'을 동시에 품는다. '나의 살던 고향은', '물푸레나무' 같은 작품은 어린 시절 광주의 풍경과 가족의 기억, 자연의 생명성을 통해 '대지적 생명'과 '공동체적 영혼'을 되살려 낸다. 노동자의 시선으로 시작된 언어가 인간 전체의 감정과 사유로 확장되는 지점이 특징이다.

특히 시대적 맥락을 선명히 드러내면서도 단순한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 감옥과 노동의 풍경은 시인의 손을 거쳐 보편적 인간의 시간으로 변모한다. 독자는 그 속에서 절망을 뚫고 솟아오르는 언어의 불씨를 만나게 된다. 날카로운 고발 대신 담백한 진술과 절제된 묘사로 시적 힘을 일구어 내며, 오히려 그 담백함이 작품의 진정성을 더욱 깊게 각인시킨다.

김형수 시인은 발문에서 "양기창의 언어들은 근대적 사유의 산물인 '데생'이 아니라 '마음'을 포착한다"라고 평하며, 이번 시집을 "노동자 시인의 우정 어린 저항"으로 정의한다.

양기창 시인은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광주전남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을 역임했다. 시집 '불사조 사랑'은 전남문화재단 창작기금 지원작으로, 세종도서에 선정됐으며, 시집 '쏠 테면 쏘아 봐라'는 백신애문학상 창작기금을 수혜했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년 2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으나, 2025년 5월 15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현재 전국현장조직추진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10일 오후 4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축사와 시낭송에는 나종영 이승철 시인, 이광재 소설가, 유종 시인, 강희정 시인 등이, 축하공연에는 촛불가수인 서광석과 산악회 친구들, 인간문화재 판소리 이수자인 이지선(광주시립창극단원), 가수 백자가 각각 함께 한다. 시집 해설을 쓴 김형수 관장(신동엽문학관)도 연단에 올라 양기창 시인의 시세계를 들려줄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2025 문화예술기관 ESG 밋-업 데이' 진행

아르코, 15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라운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아르코)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2025 문화예술기관 ESG 밋-업 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밋-업 데이'는 2022년부터 운영된 문화예술기관 ESG 워킹그룹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4기에서 도출한 문화예술 특화 ESG 지표를 최초로 발표·검토하는 행사다.

아울러 워킹그룹 참여자와 문화예술기관 관계자들이 ESG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지표 적용 방안을 논의하며 교류하는 네트워킹의 장으로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ESG 워킹그룹(2022~2025) 참여자 및 참여기관 관계자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종사자 등이며, ESG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기관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명 규모이며, 참가 신청은 10월 2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 내 구글폼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완료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참가가 확정된다.

아르코는 이번 밋-업 데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축적된 ESG 워킹그룹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예술기관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병국 위원장은 "ESG 밋-업 데이는 문화예술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ESG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특화 지표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문화예술계가 함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사계 깃든 자연의 맛 '사찰음식' 조망

격월간 '대동문화' 150호 발간
무형문화재 이학수 옹기장 다뤄

격월간 문화예술잡지 '대동문화' 9·10월호(통권 150호)가 나왔다.

표지는 지난해 대동전통문화대상 옹기장 분야 대상 수상자이자 9대째 미력옹기를 운영해 온 무형문화재 이학수 옹기장이 장식했다. 표지 이야기에서는 그의 옹기 인생을 톺아본다.

이슈에서는 사계가 깃든 자연의 맛이라는 주제로 사찰음식을 다각도로 들여다 본다.

사찰음식 속 지혜와 철학,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이 시대, 세계인의 웰빙먹거리로 부각 중인 사찰음식을 다룬다.

이와 함께 금수암 대안 스님의 요리, 구례 화엄사 마하연 보살의 공양계, 수행으로서의 차 공양과 제다도 조망한다.

이어 아트라이프 코너에서는 판화와 평면화를 넘나들며 동시대적 물음을 치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내온 노정숙 작가의 작품세계를 엿본다. 예도 한길 코너에서는 담양에서 선죽공예공방을 운영 중인 한경치 선자장을 만나 45년간 바람을 빚어온 그의 삶을 조명한다.

이와 함께 구술자서전에서는 광주일고 구내 이발관 정병택 이발사를,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포크가수 은희와 디자이너 김키미 모녀를 각각 만났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수요콘서트' 출연단체 공개 모집

광주문화재단, 오늘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올해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신규 기획공연 '수요콘서트'에 참여할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수요콘서트'는 음악·무용·연극·문학·미술·연희 등 공연예술과 타 문화를 아우르는 2개 장르의 융합공연으로 운영되며, 오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총 7회 무대가 마련된다.

선정된 단체에는 출연료 300만원(1일 1회 공연)이 지급되며, 공연장 및 부대시설 이용, 공연 안내 인력, 홍보물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공모 접수는 1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jwstory@gjc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